교육혁신선도지역 탈락 제주, 후속 조치는?

제주도교육청 "탈락 원인 분석… 내년 재도전" 입장
개별 지역 평가 결과 공개 안 되고 추가 지정 불분명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종료… "후속책 마련을"

속보= 제주가 정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서 고배(**본보 4일자 2면 '제주 교육혁신선도지역 탈락'**)를 마신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원인 분석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하지만 제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가 공유되지 않은 데다 내년 추가 지정 계획도 불분명해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3일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번 공모에 참여했던 지역에 평가 결과를 안내했다.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2유형'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제주에도 해당 내용이 전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공모에 나섰던 제주도교육청이 전달받은 공문에는 평가 의견에 대한 총평과 2유형 지정 지역의 우수한 점,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이 포함됐다. 다만, 2유형 전체 지역에 대한 종합 평가의 성격으로, 제주의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1·2유형을 다 합쳐 130개 지역을 평가한 만큼 지역별 결과를 상세히 안내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지역에서 최대한 아쉬운 점이나 잘된 점을 알 수 있게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난감한 기색이 감지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모 결과를 토대로 탈락 사유를 분석하고 기존 혁신 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확인이 어려워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 선정된 타 지역의 기획서 등을 참고하며 내년 재도전 전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제주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로 배움과 생활이 함께하는 '제주형 상생마을' 지정 등 지역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산업연계 교육 강화 과제에는 제주형 협약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결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자율 과제에는 교육감 공약인 '꿈꾸는 오후'를 통한 돌봄·교육 강화를 목표로 담았다.

이런 구상이 탄력받기 위해선 재정 확보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로썬 내년 추가 지정 여부 역시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검토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지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현 시점에선) 추가 지정 계획을 언제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제주의 기존 '교육발전특구'(특구) 시범사업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존 특구 사업의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공모 탈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존 특구 사업의 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교육청과 제주도에 촉구했다. "탈락에 따른 사업과 재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는 올해 종료되는 특구 시범사업으로 2024년부터 3년간 16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 현 정부 들어 올해 처음 지정된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기존 특구 사업을 재편하는 것으로, 2유형 지역은 최대 5년간 연 30억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 BRT 정책자문단 서광로 등 주요 사업구간 현장 점검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책자문단은 지난 3일 서광로 운영구간과 향후 사업구간인 동광로~노형로, 일주동로~연삼로의 교통여건을 점검했다. >>사진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운영구간과 향후 사업구간의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은 이날 오후 연삼로를 시작으로 일주동로, 동광로, 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단은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 2단계 사업구간인 연삼로와 일주동로의 도로환경과 교통여건을 확인한 뒤, 1단계 사업구간인 동광로를 거쳐 서광로로 이동했다.

서광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직접 주행하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서는 버스에서 내려 섬식정류장과 주변 도로환경을 점검했다. 이어 향후 사업구간인 도령로와 노형로의 교통 흐름을 확인하고 상대식 정류장과 섬식정류장을 비교했다. 한라병원 인근에서도 하차해 현장 여건을 살폈다.

정책자문단은 이번 현장점검 내용과 진행 중인 설문조사 결과, 지역 관계자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문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작업 끝내고 뭍으로 돌아가는 해녀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린 4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우금포 앞바다에서 뿔소라 채취 작업을 끝낸 하례리어촌계 해녀들이 포구로 돌아가고 있다. 강경민 사진작가

올해 10월 제주 잦은 강수에 기온 '널뛰기'

평균 기온 20.2℃로 역대 3위 기록

지난달 제주지역 평균기온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강수 속에 이상고온과 이상저온이 모두 발생하는 등 기온 변동도 컸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의 '2026년 10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평균기온은 20.2℃로 집계됐다. 이는 평년(18.7℃)보다 1.5℃ 오른 수치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지난달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이상고온과 이상저온이 번갈아 발생하는 등 잦은 기온 변동이 뚜렷했다.

또 지난달 강수량은 275.5㎜, 강수일수는 13.5일로 평년(91.6㎜·6.3일)보다 3배 높아 각각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중순과 하순의 강수일수가 각각 5.5일과 6.5일로 이틀에 한번 이상 비가 내려 많은 강수량이 중·하순에 집중됐다.

태풍은 지난달까지 모두 31개가 발생했으며 지난달에만 5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북상하면서 제주도 해상에 영향을 줘 지난달 25일 태풍특보가 발표됐으며, '참피'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발생한 10월 영향 태풍이자, 역대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됐다. 박소정기자

제주서 만나는 세계 문화… '제주글로벌축제'

6일 제주국제교육원·제주학생문화원

제주 안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찾아온다. 제주국제교육원이 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여는 '제19회 제주글로벌축제'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세계의 문화, 제주의 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준비됐다. 탐라중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되는 개막식은 국제가정문화원 하나로국제예술단의 나비춤 공연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과 일본,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5개국 출신 단원이 함께하는 나비춤 무대에선 '아리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펼쳐진다. 오후 공연에선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어 뮤지컬 등도 만날 수 있다.

학생문화원 야외에는 모두 26개의 체험 부스가 차려진다.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 활동이 방문객을 맞는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특강에선 EBS-FM '이지 잉글리시'(Easy English)의 진행자 이보영 박사가 AI 시대의 영어교육 방향을 소개한다. 사전 신청은 마감됐지만, 당일 불참자로 잔여 좌석이 발생할 경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신관 준공





건강검진센터 확장 이전
- 일반·생애검진
- 6대 암검진
- 장애친화검진
- 영유아검진
- 종합검진



재활치료실 확장 이전
- 신경계 운동 치료
- 작업 치료
  - 연하재활, 인지행동치료, 일상생활동작



주차장 신설
- 지하 2층 ~ 지상 1층 주차장 증축
- 총 주차면 412면 확보

진료시간
평 일 오전 08:30 ~ 오후 05:30
검진센터 오전 07:30 ~ 오후 04:30
점심시간 오후 12:30 ~ 오후 01:30
주 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운영

Jeju 서귀포의료원 SEOGWIPO MEDICAL CENTER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T) 064-730-3000 (F) 064-762-000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50717-중-193932호)을 득한 광고 입니다.